‘4할’ 김도영·‘6홈런’ 송찬의, 시범경기서 빛난 신인들

KIA 신인 김도영, 시범경기 타율 1위 ‘눈도장’
‘중고 신인’ LG 송찬의, 6홈런으로 기대 키워
키움 신인 노운현도 5경기 8이닝 1실점 ‘인상’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18일 동안 이어진 시범경기에서 신인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선보이며 눈도장을 찍었다.

시범경기에서 코치진은 폭넓게 선수를 투입하며 전반적인 전력 구상을 마무리한다. 시범경기는 신인들의 1군 진입 가능성도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시범경기에서는 눈에 띄는 신인들이 여럿 나왔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19)이다.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KIA에 1차 지명을 받은 김도영은 정교한 타격과 장타력, 빠른 발, 안정된 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지명 전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그에게 ‘제2의 이종범’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상이었다. 건강 문제로 스프링캠프 합류가 늦었지만,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12차례 시범경기에 출전한 김도영은 타율 0.432(44타수 19안타)으로 시범경기 타율 1위에 올랐다. 홈런 2개, 2루타 3개를 때려내며 장타력도 선보였다.

김도영은 타율 뿐 아니라 최다 안타, 출루율(0.432)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고, 장타율(0.636)에서도 2위에 자리하며 존재감을 한껏 뽐냈다.

시범경기에서 확실히 두각을 드러낸 김도영은 개막 엔트리에도 무난히 승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LG 트윈스에도 주목할만한 ‘중고 신인’이 등장했다. 바로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7라운드 전체 67순위로 LG에 입단한 송찬의(23)다.

송찬의는 올해 시범경기에 12차례 출전해 6개의 홈런을 작렬했다. 시범경기 홈런 1위, 장타율(0.795) 1위, 타점 공동 2위(10개)를 차지했다. 시범경기 홈런 6개는 역대 시범경기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이다.

그는 지난 22일 SSG 랜더스와의 시범경기에서 메이저리그 통산 90승에 빛나는 이반 노바, 2020~2021년 빅리그에서 활약한 국내 최고 좌완 김광현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4일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구장인 잠실구장에서도 홈런을 신고했다.

입단 5년차지만, 송찬의는 1군 경기 출전 경험이 전무하다. 퓨처스(2군)리그에서도 2018~2019년 2년 동안 29경기에 출전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도 야구를 놓지 않은 송찬의는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0.301(146타수 44안타) 7홈런 23타점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올해 시범경기에서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주전 타자 대부분이 좌타자로 구성된 LG로서는 우타 거포인 송찬의의 등장이 반갑기만하다. 류지현 LG 감독은 송찬의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다.

2022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4라운드 전체 32순위로 키움 히어로즈 지명을 받은 잠수함 투수 노운현(19)도 눈길을 끈 신인이다.

올해 시범경기에서 5차례 등판해 8이닝을 소화한 노운현은 단 1실점했다. 삼진 8개를 잡는 동안 볼넷 2개, 몸에 맞는 공 1개를 내줬고, 안타는 4개를 맞았다.

시속 120㎞대의 직구와 100㎞대이 커브, 체인지업 등을 던지는데 타자들이 노운현 공략에 애를 먹었다.

조상우의 군 입대로 불펜이 헐거워진 키움에게 노운현의 등장은 희소식이다. 홍원기 키움 감독은 노운현의 활용법을 놓고 고민 중이다.

뉴시스

21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 3회말 2사 2루에서 KIA 1번타자 김도영이 1타점 2루타를 친 뒤 2루에서 타임을 요청하고 있다.

구례군 여자씨름단 엄하진 선수, 국화급 1위

국화급 챔피언 영동군청 임수정 꺾고 우승…통산 5번째 장사 타이틀 획득

구례군 여자씨름단 엄하진 선수가 국화급(70kg 이하) 챔피언 영동군청 임수정 선수를 꺾고 국화급 장사 1위를 차지했다.

군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3월 29까지 6일간 열린 ‘위더스제약 2022 평화의 도시 거제 거제장사씨름대회’에서 엄하진 선수가 임수정(영동군청) 선수를 제치고 개인 통산 5번째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결승전에서 엄하진 선수는 개인통산 22번의 장사 타이틀을 보유한 임수정(영동군청) 선수와 맞붙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임수정 선수가 밀어치기 기술로 1점을 획득하며 앞서 나갔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엄하진 선수가 들배지기, 밀어치기, 덧걸이를 활용한 연계기술과 잡채기 기술로 2:1 역전승을 거두며 황금송아지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구례군청 선채림 선수와 신하진 선수는 4강 준결승전에서 이번 대회 각 체급 우승자인 거제시청 한유란, 이다현 선수와 붙어 아쉽게 3위에 그쳤다.

또한, 구례군청 씨름단은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값진 성과를 내어 구례군을 빛내주어 고맙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제34회 회장배전국우슈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전남우슈를 빛낸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왼쪽아래줄 고은철, 김영준, 김민수, 장민규, 윤웅진, 서희주, 장보근 코치, 뒷줄 하철환, 강동우, 윤여중, 조의민)

임명옥, 리베로 역대 최고액 3억5000만원 계약

3시즌 연속 리시브·디그·수비 종합 1위 달성한 최초의 선수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한 임명옥(36)과 3억5000만원(연봉 3억·옵션 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명옥은 이적 후 곧바로 도로공사의 첫 챔피언 등극을 이끈 주역이며, 최근 2시즌 연속 베스트7, 3시즌 연속 리시브, 디그, 수비종합 1위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이다.

도로공사는 팀을 위해 최고의 기량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임명옥에게 리베로 최고 대우를 제시했다.

임명옥은 “저를 믿고 좋은 조건을 제시 해주신 구단에 너무 감사하며, 이번 시즌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명옥은 프로배구 원년인 2005년부터 활약하고 있으며,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뉴시스

월드컵 32개국 중 27개국 확정…한국 3포트 유력

4월2일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 추첨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가 일찌감치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30일(한국시간) 기준으로 본선에 갈 32개국 중 27개국이 정해졌다.

남은 5개국은 북중미 예선을 진행 중인 2개국과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자 2개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 1개국이다.

이제 본선 조 추첨으로 시선이 쏠린다.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 추첨은 다음달 2일 오전 1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다.

조 추첨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 따라 8개국씩 포트 1~4를 나눠 이뤄진다. 순위에 따른 포트 구분인 만큼 빠른 포트에 속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랭킹의 상대와 대결한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포트1에 포함될 8개국이 정해졌다고 알렸다.

개최국 카타르(52위)를 포함해 벨기에(1위), 브라질(2위), 프랑스(3위), 아르헨티나(4위), 잉글랜드(5위), 스페인(7위), 포르투갈(8위)이다. 순위 변동이 있어도 상위권은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순위를 기준으로 포트2에는 덴마크(9위), 네덜란드(10위), 독일(11위), 스위스(14위), 크로아티아(15위), 우루과이(16위)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ESPN은 여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북중미 예선에서 멕시코(12위), 미국(13위)이 통과, 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와 미국은 각각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최종전을 앞두고 있다.

벤투호는 이란, 일본 등과 함께 포트3에 속할 게 유력하다. 세네갈(18위), 이란(21위), 일본(23위), 모로코(24위), 세르비아(25위), 폴란드(28위), 한국(29위), 캐나다(33위) 등이 후보다.

마지막 포트4에는 우선 튀니지(36위), 카메룬(38위), 에콰도르(44위), 사우디아라비아(53위), 가나(61위)가 속하고, 남은 세 자리에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자 2개국과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 1개국이 들어간다.

한국은 같은 대륙 국가와 한 조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1의 카타르와는 조별리그에서 만날 수 없다.

가정하면 포트1은 대부분 유럽, 남미의 강호이기 때문에 대결을 피할 수 없다. 포트2에선 전통의 강호 네덜란드, 독일 등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포트3 진입이 상대적인 약체와 상대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 플레이오프를 거친 유럽, 남미의 강호가 포트4에 들어가 조 추첨에서 벤투호와 한 조에 편성될 수도 있다.

전남우슈, AG 국가대표·국가대표 상비군 발탁

금 1개·은 2개·동 2개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충북 보은군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34회 회장배전국우슈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전남소속(전라남도우슈협회, 전남도청 우슈팀, 순천대)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미녀 검객‘ 서희주(전남우수협회)가 여자 일반부 장권전능에서 총점 28.03점으로 고가빈(G스포츠평택시우슈클럽)을 제치고 우승하며 2010 광저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에 이어 4회 연속으로 아시안게임 대표로 발탁되었다.

전남도청 윤웅진(산타-56KG)은 준결승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결승전까지 순조롭게 올라갔으나 대회중 입은 다리 부상으로 결승전에서 아쉽게 기권하며 은메달을 획득하며 상비군 발탁했다.

하철환(산타-65KG)은 16강에서 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인 조성현(경남체육회)를 2:0으로 꺾고 준결승까지 진출하였으나, 박동아(영주시청)에게 아쉽게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장민규(태극권전능)는 태극권, 태극검에서 각각 9.70의 고득점을 획득하며 종합 19.4점을 득점하였으나 안현기(경주시청)와 0.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상비군에 발탁했다. 김영준(남권전능)도 좋은 경기력을 펼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순천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윤여중(산타-56kg)은 고등부를 제패한 후 첫 성인무대에 첫발을 딛으며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나, 박건수(충남)에게 패해 아쉽게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남진 기자

세계1위 고진영, 시즌 첫 메이저대회 우승 정조준

고진영(27)이 올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오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션힐스CC(파72)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까지 ‘ANA 인스퍼레이션’으로 열렸지만, 셰브론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면서 대회명이 변경됐다.

대회 총상금은 총상금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원)이며 우승상금은 75만 달러이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다. 2019년 이 대회를 제패한 고진영은 3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뉴시스